

## 마쓰다이라고와 마쓰다이라 가문

도요타시 중심부에서 남동쪽에 있는 산간 마을 ‘마쓰다이라고’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무가 중 하나인 마쓰다이라 가문의 발상지입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훌륭한 군주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도쿠가와 막부(1603~1867)를 설립하고 일본을 통치하기까지 한 마쓰다이라 가문의 기원을 신사, 사원, 두 곳의 산성터가 말해줍니다.

### 마쓰다이라 가문의 계보

현지 전승에 따르면 마쓰다이라고는 13세기 후반에 당시 수도였던 교토에서 이주한 귀족 아리와라 노부모리가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 후, 노부모리의 아들인 노부시게가 부친의 뒤를 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쿠아미(1394년 사망 추정)라는 행각승이 노부시게를 찾아왔습니다. 도쿠아미는 노부시게의 딸 스이히메와 사랑에 빠졌고, 스이히메와 결혼해 아리와라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도쿠아미는 마쓰다이라 지카우지라는 이름을 자칭해 마쓰다이라 가문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가 사망한 정확한 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카우지는 인근 7개 마을을 통치하에 두었으며, 후계자들은 영지를 더욱 넓혀 남쪽과 서쪽의 평야까지 진출했습니다. 1500년대 중반에는 미카와국(현재 아이치현의 동쪽 절반)의 대부분을 통치했으며, 마쓰다이라고에서 남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오카자키 성을 본거지로 했습니다. 이 성에서 마쓰다이라 가문 제 9대 당주 마쓰다이라 다케치요(1543~1616)가 태어났습니다.

마쓰다이라 가문의 영지 확대는 막강한 라이벌들에 의해 저지되었으나 다케치요는 살아남아 동맹관계를 구축했고, 당시 가장 강력한 무장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바꾸고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후,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하는 도쿠가와 막부를 설립했습니다.

마쓰다이라의 이름은 도쿠가와 가문 내에서도 이어졌는데, 각 분가의 후계자만 ‘도쿠가와’의 이름을 쓸 수 있었으며, 형제들은 ‘마쓰다이라’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마쓰다이라에는 수많은 분가 존재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영지와 막부의 요직을 부여받았습니다.

### 현재의 마쓰다이라고

현재 마쓰다이라고의 중심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격화해 모시고 있는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가 있습니다. 과거 마쓰다이라 저택 터에 세워졌습니다. 이 저택은 가파른 산 중턱 기슭에 있으며 삼면이 해자로 보호되어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사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산탕(産湯, 갓난아기용 목욕물)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산탕의 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산과 불로장생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20 세기에 들어서도 마쓰다이라의 분가는 이 땅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카우지 동상이 행인을 지켜보는 마쓰다이라고 원지가 있으며, 그 앞에는 마쓰다이라 가문의 보리사인 고계쓰인 절이 있습니다.

마쓰다이라고로 이어지는 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은, 만에 하나 마을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마쓰다이라 가문이 퇴각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언덕 위 주변에는 기본적인 방어진설이 갖추어진 산성(산 위에 세워진 요새) ‘마쓰다이라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쪽의 계곡 입구를 향해 더 가면 1500 년대에 존재했던 오규 성의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돌담과 성곽을 보면 마쓰다이라 성보다 ‘성다운’ 요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 고계쓰인 절, 2 곳의 성터가 함께 국가지정사적 ‘마쓰다이라 가문 유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